

# “대구형 협치 통해 경제 위기 극복·자존심 회복”

## 홍의락 경제부시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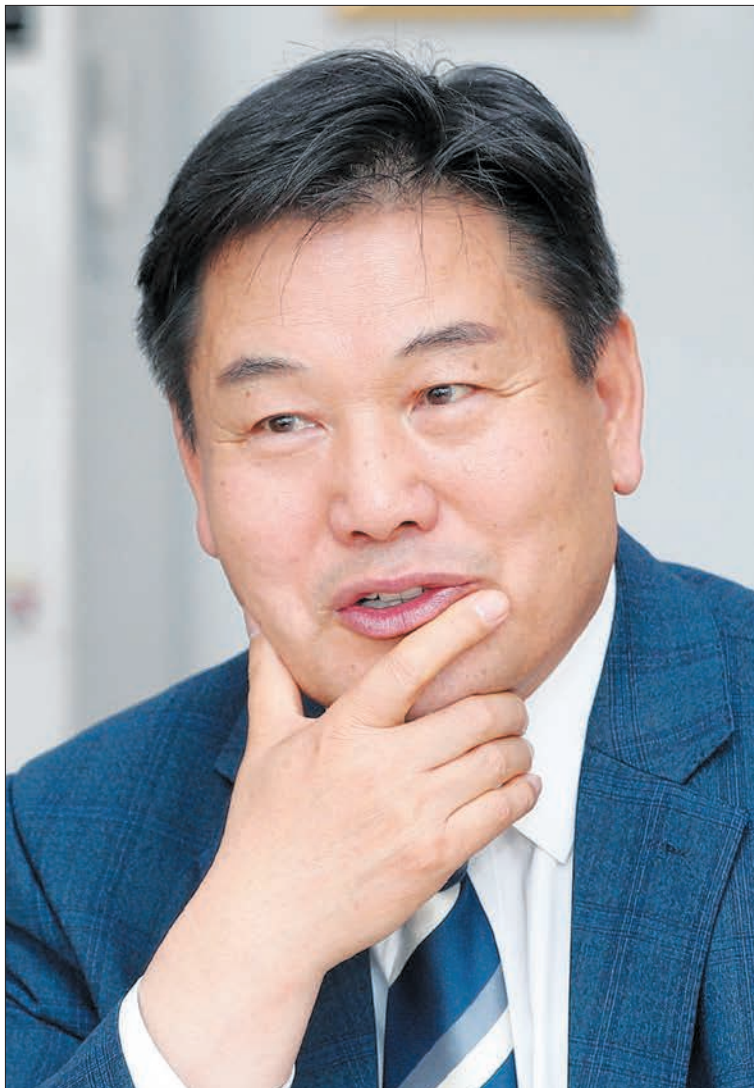
전직 국회의원에서 대구시 경제사령탑으로 변신한 홍의락 신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형 협치 모델의 성공을 다짐하며 기업인 출신의 특기를 살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태전동 과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좌절하고 상처 입은 대구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협치의 성공 모델이 경제 활력을 넘어, 그동안 훼손된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시장은 “대구에는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성공

대구 발전·성공 외면 못 해  
권시장 제안 어렵게 수락

정부 여당 소통 채널 뚫려  
대구형 리쇼어링 등 박차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k@maeil.com

을 이뤘다는 남다른 자부심이 생길 기대한다. 대구 곳곳에서 구청원들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처음 경제부시장직 제안을 받고 수락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다.

홍 부시장은 “6월 초 권영진 대구시장과 2시간 가까이 토론회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외면하고 돌아서면 그동안 한 말들이 모두 빈말이 된다.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시장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의 시정행을 만류하기도 했다. 팬히 시청에 들어갔다가 들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홍 부시장은 “제 입장에서 그런 우려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상처를 받은 대구시민들이 총선 후에는 정부 여당과의 소통 채널이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해나가는 게 우선이다. 나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길 바란다. 들리리를 서더라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권 시장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대해 부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사 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양 부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인사를 협의·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 사항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는 홍 부시장이 당장 자기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취임식과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한 홍 부시장은 당분간 업무 보고에 집중할 듯하다. 그럴 듯한 이벤트에 치중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끈질긴 대화를 통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시장은 “실무적인 업무 파악이 우선이다. 물론 국회의원 시절 예산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시

정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모두 알진 못한 나. 업무 보고를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전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익숙해져 있다고 진단한 홍 부시장은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구상해 보겠다고 했다.

독일 자동차 설비 수입 업체 대표이사로 20년간 재직하던 그는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경제 분야에서 자신의 특기를 잘 살려보겠다고 했다.

홍 부시장은 “관료 사회를 경직시키는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하는 체계를 고쳐나갈 방안과 지역사회에는 ‘해보자’라는 기본이 드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리쇼어링 사업과 관련해 유턴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민수 기자 msg@maeil.com

## 해외 청산부터 국내 정착까지...대구 돌아오면 파격 지원

시 ‘대구형 리쇼어링’ 설명회  
정부 정책+지자체 지원책  
최대 5억원 이전 비용 보조  
규모별 부지 선정 무상 임대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이 대구로 돌아오면 정부 지원 정책에 더해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홍보설명회’를 열고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시가 지난달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로 30개 기업,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정부 정책에 더해 지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홍보설명회에서 김진혁 대구시 투자유치과장이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aeil.com

자체 차원의 내실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은 해외 청산부터 국내 정착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맞춤형 전담 TF가 구성돼 최대 5억원 한도로 해외 설비 국내 이전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중소·중견·대기업 등 규모별 부지를 선정

해 무상 임대하고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유턴 기업에 대해 인력채용, 금융 및 R&D 지원, 세금 감면, 스마트 공장·로봇 보급 등을 지원한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대구시와 12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자동차부품기업 (주)THN 채승훈 대표는 “고급 인력 수급과 다

른 지역보다 우수한 노사관계, 보안 용이성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대구에 신제품 생산공장) 투자를 결정했다”며 “(많은 기업이 대구로 올 수 있도록) THN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현장은 기업 관계자들의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대구 한 IT부품 생산업체 관계자는 “해외 법인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 유턴을 고민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진이 이번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 하반기에 1, 2개라도 성공 사례를 발굴해 대구가 전국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을 확신과 신뢰를 주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 “文, 부동산 정책 중간만 가라” ‘강성 친노’ 조기숙 연일 비판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지도도 높자 의견 청취 생략”  
진중권 “이분 돌아서면 심각”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글은 앞서 조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 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리다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비공

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며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기숙 교수가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며 “이분, 옆에서 지켜봐 주기 민망할 정도로 강성 골수 친노”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빠들에게 ‘비판’이란 그 의미를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언어 현상이 아니라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자극”이라고 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도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로운한방병원**  
암 재활 중점병원  
암·뇌신경·척추관절재활  
MRI·CT·내시경·초음파·검진  
중앙내과·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한의학  
T.1670-7512  
수성구청역 2번 출구 앞  
성일빌 제19020-동-3891호

每日新聞과 함께하는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 힘내요 대구경북

대구시민·경북도민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요즘, 대구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업체는 물론 모든 지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랑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상품 및 지역상권 이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립시다.

**SM 그룹은 대구경북 기업입니다**

SM (주)티케이케미칼 SM (주)남산알미늄 SM (주)남산알미늄 자동차사업본부 SM (주)우우방 SM (주)Bexel SM (주)남선홀딩스 SM (주)화진 SM (주)화진인터내셔널 SM (주)우방산업

\* ATB(향군사)는 SM (주)티케이케미칼이 만듭니다.